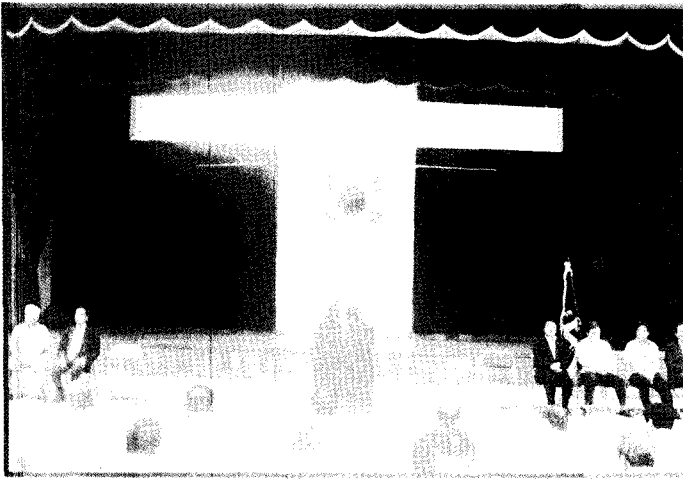


한국양봉협회 제주지회 ‘양봉인 가족 단합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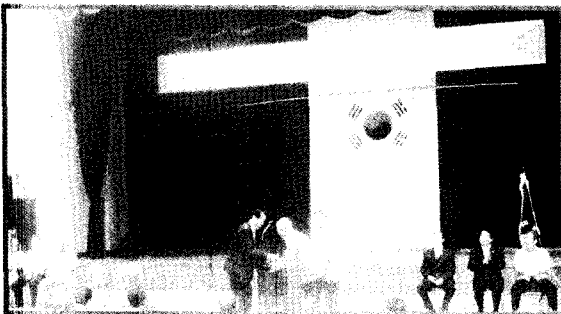
8월 24일 제주 서귀포 효돈 생활 체육관서 열려



한국양봉협회 제주지회(지회장 양광식)는 지난 8월 24일(월) 제주 서귀포시 효돈 생활체육관에서 ‘양봉인 가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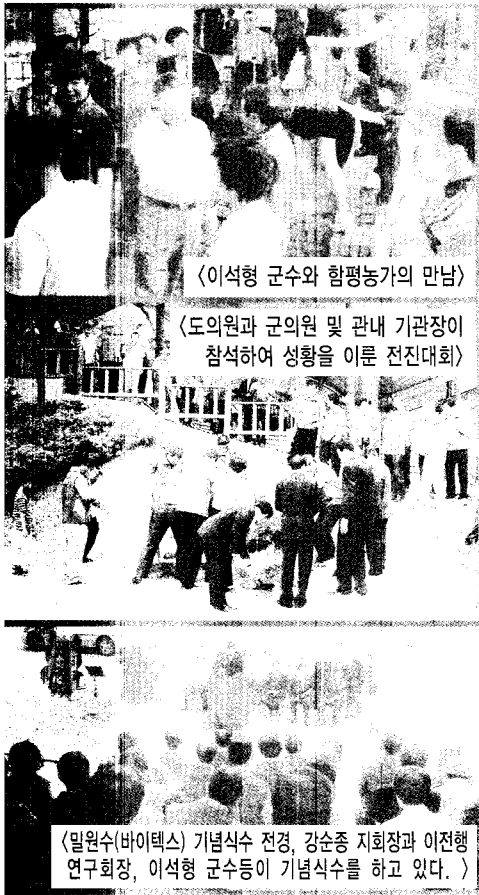
박영부 서귀포 시장과 도의원, 농업기술원장 등을 비롯해 제주지회 양봉농가와 그 가족 18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개회식과 더불어 체육대회, 민속놀이 한마당,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제주지회체육대회에 참석한 협회 조균환 부회장은 축사에서 “오늘의 단합대회를 계기로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봉**



한국양봉협회 함평군분회, 함평군양봉연구회

- 밀원수(바이텍스) 기념식수 및 친환경 벌꿀생산 결의
- 8월 11일 전진대회 개최로 양봉산업 명품화 모색



함평군양봉연구회는 한국양봉협회 함평군분회와 함께 친환경 벌꿀 생산을 위한 전진대회를 지난 8월 11일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의 강순중 광주전남지회장과 광주전남지역분회장, 양봉관련자 및 양

이진행 함평군 양봉연구회장은 “올해 아까시아 벌꿀 작황이 고온현상과 같은 이상기온으로 흉작이었다”며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바이텍스 같은 밀원조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함평군 양봉연구회 및 함평군 분회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 벌꿀을 생산하여 “함평나비 벌꿀”을 명품화하는데 회원 모두가 열정을 가져줄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이날 전진대회에 참석한 이석형 함평군수는 지역 양봉가들과 함께 “함평나비 벌꿀” 시식회를 열어 용천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아까시아 벌꿀, 프로폴리스 등을 홍보하였으며, 기념식수에도 손수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곤충산업 발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양봉산업을 발전시키고 곤충산업과 연계한 양봉산업 명품화를 적극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봉**

봉연구회원 160여명이 참석하여 친환경 벌꿀 생산의 결의를 다졌다.